

존 오스왈트 박사, 열왕기, 19회기, 1부

열왕기하 5-6장, 1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안녕하세요. 지상의 언약, 즉 열왕기상하의 연구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시리아 장군 나아만의 치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가 관심을 갖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당신께 나아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전체 우주의 맥락에서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당신은 알고 관심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비극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처한 상황의 스트레스를 보고 잊어버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들을 당신에게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당신 안에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우리는 당신을 당신의 현실로 데려와서 이 모든 상황을 견디고 치유하고 깨끗케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공부할 때 당신을 보고 우리 삶과 관련하여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다루는 두 권의 책의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이어집니다. 나는 이것이 두 사역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두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역이며 바알이 하나님을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역이다. 이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나요? 엄청난 힘을 지닌 정령? 아 맞다. 하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다.

한 신이 있는데, 그는 우주 밖에 서서 모든 지점에서 우주를 꿰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주가 아니므로 우주를 통해 그를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인 엘리사의 사역 부분을 살펴보고, 특히 여기에는 일련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야훼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발전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의 사역이 어떻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축복의 사역이지만, 여호와와 그 사역자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이것이 축복인가? 이것이 축복의 사역인가? 예. 저주의 사역인가? 예.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처음 세 구절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것 중 하나는 대조입니다.

위대한 사람과 당신의 대조 1절에서 그의 위대함이 어떻게 강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호의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깐만, 그게 뭐죠?"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아, 하지만 성경 기자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야훼의 목적과 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리아 왕은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내 요점은 위대한 사람, 높은 총애를 받는 사람, 승리한 사람, 용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그 긴 문장 전체가 나병환자라는 한 단어로 끝납니다. 모든 성취,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한 가지로 특징지어집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센병인 나병으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질병은 서기 2세기에 이집트에서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염성 피부병으로, 관련된 송배의 종류에 관한 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맞서는 위대하고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리아 사람들은 습격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시종들었습니다.

얼마나 대조되는가, 강력한 전사, 작은 하녀, 위대한 남자, 어린 소녀, 선장, 포로.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아, 진실은 당신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당신의 삶에서 야훼의 비밀을 모른다면 당신은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작고, 하찮고,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당신의 삶 속에 야훼의 비밀을 알면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해 있나요? 나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제 이 어린 소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그녀는 포로 생활과 봉사의 삶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세요, 거기로 가서 그것을 얻으세요. 그녀는 얼마나 쉽게 절망에 빠졌을까.

그녀는 얼마나 쉽게 냉소적이고 우울해졌을까. 그녀는 얼마나 쉽게 여호와께 화를 낼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녀는 자신의 생명이 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고 여호와와 그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는 선하시다. 다시 말하지만, 그녀는 포로였을지 모르지만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게 당신과 나에게 가능할까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실제로 여호와를 알기에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되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다 하더라.

이제 잠시 후에 이것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는 실제 사마리아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종 국가의 이름은 수도로 명명됩니다. 따라서 그녀는 그가 실제로 수도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녀가 그 사람의 이름조차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녀는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fs도, ands도, buts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자, 여기서도 화자는 매우 유능합니다. 그는 많은 일로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아내가 나아만에게 말했고 그들은... 아니, 나아만은 들어가서 그의 주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은 이제 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말 흥미롭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선지자는 왕으로부터 봉급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왕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선지자가 당신의 군대 사령관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쓰십시오. 그러면 왕은 그의 선지자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의 수하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이 당신과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얼마나 쉽게 억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의 통제를 얼마나 쉽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 많은 돈, 천 파운드의 금, 100, 150파운드의 은이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의 말을 듣고 흥미로워졌을 때, 우리는 3장에서 보았듯이, 이 사람은 아합의 둘째 아들 요람입니다. 우리는 3장에서 즉시 문제가 닥쳤을 때, 야훼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람은 일종의 불안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누구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엘리사에 대해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 이야기를 통해 5장과 6장에서 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실제로 요단강 아래 길갈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사마리아에 즉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람에게 약간의 패스를 줄 수 있지만 그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특히 25~30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면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저기 사마리아 왕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옷을 찢었느냐? 왜 옷을 찢었느냐? 지금

그를 나에게로 오게 하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라. 이제 그것은 나에게 조금 놀랍습니다. 나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아마도 길 위의 무대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은 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무엇보다도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종류의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해설자는 우리를 위해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위대한 시리아 장군이 군복과 말, 병거를 모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 그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맙소사, 여기 이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로 나가야 하는데 나 엘리사가 그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우와.

엘리사는 그에게 문 앞에 오는 예의조차 베풀지 않습니다. 그는 하인을 파견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위대한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검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글썄, 당신은 당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위대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고 중요해 보이도록 이러한 외관을 만듭니다.

엘리사는 누구의 겉모습에도 감동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몇 분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르단으로 가서 씻으세요.

어머. 이제 고대에도 요르단에 지금보다 물이 훨씬 많았지만,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와 다른 곳에서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가 개울이라고 부르시는 곳입니다. 작은 개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것은 다메섹의 헤르몬 산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처럼 눈이 녹아서 맑고 아름답고 반짝이는, 전혀 인상적이지 않은 정글에 흐르는 작은 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존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만의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쬐었다고 생각하는 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부심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세상의 최고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우주에 궁극적인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까지 그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보려도 나오지 않아요. 나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나에게 여기 진흙투성이의 작은 개울에 뛰어들라고 말했습니다.

3장에서처럼 요람이 '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의 종종 한 사람이 이르기를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니라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다고 말하는 하인입니다.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작동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동한다고 가정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존심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화자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꾸미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볼 수 있나요? 그는 물속에 한 번

들어가고 나오더니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지?"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일곱 번이나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이것이 쓸모없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뇨. 네 번째로 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오, 친구들, 깨끗해요? 당신은 살아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까? 글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러 오신 일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소리를 지르며 돌아와서 그것이 말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의 삶은 어린 소년의 삶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일은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나아만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진을 얻었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군요. 이제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것은 단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 당신과 제가 오기에 정말 좋은 곳이군요.

신이 있나요? 우주 위에 신이 존재하는가? 내 삶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나요? 예, 예, 예. 그러니 선물을 받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자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는 마차에 서서 이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선물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맹세 형식이 항상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완전한 형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듯 나를 치실지어다'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맹세하는 것이 됩니다. 아니, 아니, 신이시여,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와, 좀 촌스럽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은 평지의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그의 조카 롯과 그 성읍의 모든 전리품을 사로잡은 후에 가서 그 군대를 쳐서 쳐서 백성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느니라.

소돔 왕이 이르되 아브람아 백성을 내게 돌려주고 전리품은 다 네가 가지라. 그리고 아브람은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안 돼?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엔 여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절대, 절대 안돼. 사람들이 '오, 그래, 그래'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오, 엘리사야, 너는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시리아 사람들이 해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엘리사의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는 단 한 순간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공급이시라 당신의 공급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성경의 사실성과 정직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분명히 나아만에게는 약간의 제자화가 필요합니다. 그는 말했어요, 알았어,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선물을 줄래? 노새 두 마리에게 흙을 잔뜩 주실래요? 이제 그는 여호와와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리아 땅에서도 야훼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흙을 조금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왕과 함께 라몬 신전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킹이 내 팔에 기대어 있다.

그리고 그가 라몬에게 절을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용서해주세요. 흥미롭게도 엘리사가 '예'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누구인지 이해하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